

《증보문헌비고》(교빙고)의 구성과 사료적가치

신철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책들에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이 반영되어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제273페이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수한 책들을 수많이 남겨놓았다.

《증보문헌비고》는 고대로부터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문물제도 전반을 천문, 지리, 군사, 외교 등 16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한 책으로서 각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민족고전문헌이다.

책의 전신은 《동국문헌비고》이다.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에 천문, 지리, 군사, 호구 등 1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100권으로 편찬된 책이었다. 그후 1791년에 7개의 《고》를 새로 더 설정하고 수정보충하여 146권 20개 부문으로 된 《증보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후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증보동국문헌비고》를 다시 수정, 보충, 정리하여 1908년에 250권 16개 부문으로 된 《증보문헌비고》를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교빙고》는 《증보문헌비고》의 16개 부문의 한 부문으로서 《동국문헌비고》에는 설정되어있지 않다. 《증보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할 때에 새로 설정하였던 《조빙고》를 후에 수정보충하면서 명칭을 《교빙고》로 바꾸었다.

《조빙고》를 《교빙고》라고 고친것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졌기때문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렸기때문이였다.(《증보문헌비고》법례)

《교빙고》는 《증보문헌비고》의 차례에서 12번째 부문이며 제171권으로부터 제183권까지 모두 13권이다.

《교빙고》는 고조선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가 주변나라들과 진행한 외교관계 자료,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관계 자료 등 우리 나라의 력대 외교관계 자료가 종합되어있는 문헌이다.

《교빙고》는 《력대조빙》(1권-3권), 《본조중국교빙》(4권-6권), 《사신접대》, 《조빙잡의》, 《연경로정》(7권), 《일본교빙》(8권-9권), 《력대 각국교빙》(10권), 《서양각국교빙》(11권), 《조선-미국조약》, 《각국조약동이합편》, 《각 조약부속무역규칙》(12권), 《조선-로씨야 룡로무역조약》, 《조선-오스트리아수호조약》(13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1권에는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으로부터 세나라시기까지의 기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진행한 외교관계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2권과 3권에는 고려시기 주변나라들과의 외교관계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4권부터 6권까지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명나라, 청나라와의 외교관계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7권에는 명나라, 청나라의 사신접대와 여러가지 외교의식과 관련한 자료들이 수록되어있다.

8권과 9권에는 일본과의 외교관계 자료와 함께 일본사신들에 대한 접대와 관련한 자료, 력사에서 《강화도조약》이라고 하는 《조일수호조약》, 《조일수호조약부록》과 《조일무역규칙》 등이 원문그대로 기재되어있다.

10권에는 고대시기 류구국, 섬라국 등 우리 나라 주변에 있던 소국들과의 외교관계 자료와 세나라시기와 고려시기 주변소국들과의 외교관계 자료가 수록되어있으며 11권에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유미 여러 나라와의 외교관계 자료가 서술되어있다.

12권에는 《조미조약》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로씨야 등 유미 각 나라들과 조선봉건왕조정부가 맺은 조약원문들이 수록되어있으며 13권에는 《조선-로씨야록로무역조약》과 《조선-오스트리아수호조약》원문이 기재되어있다.

《교빙고》의 편찬에 리용된 서적들은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의 옛 서적들이다.

《교빙고》는 우리 나라의 옛날책들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정사와 《삼국유사》, 《경국대전》, 《제왕운기》, 《해동제국기》, 《통문관지》 그리고 개별적 문인들의 문집자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서적들에서 뽑은 자료들에 기초하여 나라별로, 년대순으로 편집되었다. 뿐만아니라 《후한서》, 《문헌통고》, 《송사》, 《수사》, 《금사》, 《왜기》 등 다른 나라들의 여러 력사기록들도 리용하였다.

《교빙고》는 우리 나라의 력대 외교관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편집해놓은 고전문헌으로서 력사와 문화연구에서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문헌이다.

《교빙고》의 사료적가치는 무엇보다먼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오랜 력사적기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료들이 반영되어있다는데 있다.

《교빙고》에는 우리 나라가 중국대륙과 일본을 비롯하여 주변에 존재하였던 여러 나라들과 진행한 대외관계 기사들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진행한 대외관계 기사들이 나라별로, 년대순으로 기록되어있다.

그 시기적범위를 보면 단군조선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의 말기인 1904년까지 수천년간의 력사적기간을 포괄하고있다. 따라서 《교빙고》는 력대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사를 연구하는데서 큰 가치를 가진다.

《교빙고》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세나라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진행한 대외무역관계 자료들이 반영되어있다는데 있다.

《교빙고》에는 근 2 000여년간의 력사적기간에 우리 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진행한 사신을 통한 공무역관계 자료들은 물론 사무역관계를 엿볼수 있는 자료들이 실려있다.

무역품목을 보면 금, 은, 동과 같은 금속류, 비단, 옷을 비롯한 피복류, 말, 소, 개, 양을 비롯한 짐승류, 칼, 검, 갑옷, 화살, 화살촉을 비롯한 무기류, 그릇, 주전자를 비롯한 집기류, 인삼과 같은 특산물류 등 그 종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특히 인삼과 같은 우리 나라 특산물인 경우에는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 끊임없이 이웃나라들에 수출되었음을 알수 있다.

《교빙고》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세나라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들사이의 문화적교류자료들이 반영되어있다는데 있다.

《교빙고》에는 우리 나라의 사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해당 나라들의 서적들을 우리 나라에 들여온 자료, 우리 나라의 서적들을 다른 나라들에 보내준 자료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과 문화적교류를 진행한 사실들이 기록되어있다.

우리 나라에 들여온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서적들은 불경책, 《책부원귀》, 《문헌통고》, 《홍무정운》, 《송사》, 《강희사전》과 같은것들이며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보내준 대표적인 서적들에는 《9경》, 《동문선》 등이 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나라의 장공인, 건축가, 화가, 학자들이 일찌기 세나라시기부터

왜나라에 건너가 문화와 야금술, 도자기술 등을 보급한 사실들이 기재되어있다.

《증보문헌비고》의 《교빙고》는 편찬자들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부 내용들에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고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것과 같은 제한성도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친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 자료를 폭넓게 수록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우리는 주체적립장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민족의 유구성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고증하고 살려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